

# 고난도... 환희도... 함께 울고 웃은 40년

## ■ 광주와 DJ

지난했던 삶을 마감한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굴절된 현대사에 맞서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던 '광주'와 함께 온 호남인이었다.

광주를 정치적 고향으로 삼았던 김 전 대통령이 광주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5·18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광주의 5월로 인해 삶의 많은 시간을 고통으로 살아야만 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5·18 전날인 1980년 5월17일, 신군부에 의해 날조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내란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으면서 광주와 질곡의 역사를 함께 했다.

그를 죽음의 위기까지 몰고 갔던 5·18은 그의 정치적 자산이 됐고, 민주화 운동가로서 그의 위상을 더욱 높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런 인연으로 인해 광주 시민들에게 김 전 대통령은 호남의 풀지못한 한을 간직한 정치인이자, 광주의 미래를 이끌 희망으로 각인됐다.

신군부의 만행은 80년 당시 폭도, 반란수괴 등의 온갖 정치적인 수사로 호남민을 압박했고, 그 강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김대중과 호남민을 더욱 더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

이같은 배경에서 싹튼 광주 시민들의 DJ에 대한 뿌리깊은 신뢰와 애정은 강력한 지지기반과 정치 생명의 원천이 됐고, DJ가 지난 1997년 헌정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를 이뤄낸 대통령이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김 전 대통령이 지난 71년 대통령선거에 패배한 것을 비롯해 모두 3번의 대권도전에서 고배를 마시자, 변함없는 지지로 낙선의 아픔을 달래주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준 것도 광주와 광주시민이었다.

민주화 운동가로서 김 전 대통령은 5·18 정신을 높게 평가했고 지지기반인 광주와 '광주 정신'의 상징인 5·18에 대한 애정을 끊임없이 드러냈다.

그는 1994년 5·18기념재단 설립 당시 가족들과 함께 1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해 재단 설립을 도왔고 그의 후원금은 5·18 관련 명예회복, 진실규명, 문화행사, 국제 교류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

그는 2000년 현직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5·18 묘지를 참배했고, 2006년 6월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에서도 "5·18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지난 2005년 9월5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 분향한 뒤 묵념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신군부 5·18 항쟁 배후 지목 사형 선고 3번 대권도전 고배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 현직 대통령으로 5·18 기념식 첫 참석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치고 질서와 평화를 지킨 비폭력 운동이었다"며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대통령 재임 시절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호남의 변함없는 지지 덕분'이라고 말해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주요 행사 때마다 호남을 방문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첫 방문지도 '정치적 고향'인 광주였음은 물론이다.

퇴임 1년 8개월 만인 2004년 11월 1일 광주 방문에서 김 전 대통령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永遠無窮(영원무궁)'이란 글을 남겨 5·18 정신이 역

사 속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소망했다.

당시 그는 "이름만 불려도 가슴이 저미는 총장로와 금남로, 그리고 전라남도 도청에서 빛도 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민주주의 영웅들을 생각할 때 한없는 슬픔과 감동,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된다"고 말해 청중들이 눈시울을 붉혔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듬해 9월 6일 자신의 이름을 딴 '김대중 컨벤션센터' 개관식 참석차 광주를 다시 찾았다.

당시는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도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해 전·현 정권 간 갈등이 심화하던 시기로 김 전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표하고 입원까지 했지만, 개관식 참석을 최종 결정

했다.

그는 개관식 연설에서 자신의 변함없는 지지기반인 광주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선두에는 5·18이 있고 그것은 바로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다 센터를 광주 시민의 꿈을 펼칠 구심점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로부터 9개월 뒤인 2006년 6월 김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6돌 기념 남북공동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했다.

김 전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5·18 광주 정신은 민주, 평화, 통일의 정신이었고 6.15 남북정상회담의 정신도 이런 광주의 정신을 계승한 바 크다"며 다시 한번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또 이를 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에서도 "광주 정신"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故 김대중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웬일인지 오늘 폭염이 유달리 혹심했고, 제 토굴 앞 감나무의 매미들은 귀가 아리도록 울어댔습니다. 그 매미소리를 듣다가 대통령님의 서거 소식을 접했고, 그리는 순간, 저는 지진을 감지했을 때처럼 오소소 몸을 떨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저는 청년시절부터 '김대중주의자'였고, 김대통령님은 제 영혼 속에 파리를 틀고 있는 장수설화 속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당신이 독재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저는 술에 취하면 당신을 생각하면서 '목포의 눈물'을 목청 터지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 무렵, 해태 타이거즈와 어떤 팀이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야구 경기를 하면, 해태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목포의 눈물'을 합창하고, '김대중'을 연호 하던 때였습니다.

당신은, 제가 철이 들면서 모신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대통령다운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강인한 생명력을 믿었으며

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광주민중항쟁 직후에는, 군부세력으로부터 그 항쟁을 뒤에서 사주했다 하여 사형선고를 받았고, 또 기나긴 세월 동안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국민들은 외환위기로 나라의 경제가 파탄이 났을 때에야 당신에게 나라 살림을 맡겼고, 당신은 각국을 순회하면서 외화를 끌어들이도록 경제를 살려냈고, 당신을 죽이려 한 당신의 모든 정적들에게 손을 내밀어 화해를 했습니다.

그때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남과 북은 냉전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수 강경세력은 이라크처럼 북한을 부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햇볕 정책을 썼고, 마침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그 결과 남북 경제 협력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을 경유하여, 러시아로도 가고, 프랑스나

## “이땅의 민주주의는 영원할 것입니다”

로, 당신이 이번에 임원을 했을 때에도 곧 떨치고 일어나시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알 수 없는 명명한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얼마 전, 노대통령의 영전에 꽃을 놓으면서 통곡하시던 김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쓰라린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사투했던 후배 대통령을 잃은 김 대통령님의 심사가 어찌하면 저리 슬프고 우스γκα.

대통령님의 삶은 피를 먹고 자라난 이 땅의 민주주의의 역사처럼 험난하고 신산한 피투성이의 역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정적들은 광주와 목포 사이의 도로에서 국회의원선거 유세중인 당신의 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고 하였고, 그때 다리와 허리를 다치신 당신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군부독재에 저항하다가 망명생활을 하던 중에는, 일본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보살 당하듯이 납치되어 동해바다에 수장될 뻔했다가, 미국 정보부가 피운 헬기로 인해 기적같이 살아나셨고, 아주 오랜 동안 연

영국이나 독일로도 여행을 떠나고, 우리 상금이 그 기차를 타고 수출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남북화해 분위기는 세계평화를 위해 큰 몫을 하였으므로 당신은 노벨평화상을 받으시기에 이르렀고, 바야흐로 통일이 우리 앞에 선듯 다가와 있는 듯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과 북은 준전시를 방불케 하도록 경직되어 있고, 정치는 요동치고 있고,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듯싶은 징후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심하시던 당신이 명명한 곳으로의 먼 길을 떠나시고 있으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부디 흔들리고 있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안정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국민들 사이의 소통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경직되고 있는 남북 사이의 대화의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명명한 곳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명명한 곳에서 복을 누리십시오.

한승원 (소설가)



### 한글쓰는 漢字 漢字 중국어간체자

## 특수 하스범 공개 저작권 등록

**이런 이유로 원병이 개발되었습니다.**

- 필수한 인습성**
- 비밀성**
- 포용성 및 개방성**
- 다양성 (전문가)**

**1부의 정정교정 공백서(1부)**

- 1. 1부 정정교정 공백서(1부)
- 2. 2부 정정교정 공백서(2부)
- 3. 3부 정정교정 공백서(3부)

필수쓰는 3,000한자, 금수한자, 중국어간체자 동영상 FMP 출시 예정.

## 한 중 일 교육

www.hanmiddle.com

### 획기적 漢字·중국어간체자

#### 특별 강사 양성 연수(전무후무)

모집인원 100명

1. 1부 정정교정 공백서(1부)
2. 2부 정정교정 공백서(2부)
3. 3부 정정교정 공백서(3부)
4. 4부 정정교정 공백서(4부)
5. 5부 정정교정 공백서(5부)
6. 6부 정정교정 공백서(6부)
7. 7부 정정교정 공백서(7부)
8. 8부 정정교정 공백서(8부)
9. 9부 정정교정 공백서(9부)
10. 10부 정정교정 공백서(10부)

